

화성시 비봉면 주부들의 식료품 구매 행태에 관한 연구

김 영 · 김은경* · 최정숙 · 이진영 · 강민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A Study on the Food Purchasing Behavior Characteristics of Rural Housewives in Bibong-myeon, Hwaseong

Young Kim, Eunkyung Kim*, Jeongsook Choe, Jinyoung Lee, Minsook Kang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ood purchasing behavior of rural housewives in Bibong-myeon, Hwaseong. The survey targeted grocery shopping for the home, in particular by housewives. The type of grocery store frequented, age, socio-economic factors, and ease of purchase were compared with interests in health foods. One super supermarket (SSM), three supermarkets (SM), and four convenience stores were examined in the research area, whereas a large-scale discount store and grocery stores were also examined outside the research area. The grocery store visiting rate was 61.5% in the research area and 38.5% in the other area. The SSM (62.7%) and SM (29.9%) in the research area and LDS (57.1%) and SSM (16.7%) in the other area were most frequently visited. Major purchasing products greatly differed according to the grocery store type. Major foods purchased in the SSM were grain, meat, and fish. Major foods purchased in the LDS and SM were processed products and vegetables, respectively. The LDS visiting frequency was 41.7% for 2-3 times per month and 41.7% for <1 time per month. The means of transport were mostly by private car (87.5%), whereas the SSM was visited 1-2 times per week 53.1% of the time by foot. In addition, various grocery stores are absent in rural areas and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find other methods to assess the food environment of rural areas. In future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design various ways to perform food environment research.

Key Words: Food Purchasing Behavior, Food environment, Rural area, Supermarket

1. 서 론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의 발병율은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보다는 낮은 집단에서 발병율이 높으며, 거주지역이 ‘동’인 경우 보다 ‘읍면’ 지역에서 발병율이 더 높다(국민건강통계 2011).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식이섭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개인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식생활 환경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으며, 식생활 환경의 양적, 질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harkey 2009; Gustafson 등 2011). 또한 식품섭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은 식품 섭취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Story 2008).

식품 환경을 평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지역

내의 슈퍼마켓 수와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식생활 환경을 조사한 연구(Morland 등 2002; Zenk 등 2005; Moore & Diez Roux 2006; Morland 등 2006)와 식생활 환경과 식품섭취의 질 또는 건강관련 지표, 예를 들면 체중이나 체질량지수(BMI)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Moore 등 2008; Gustafson 등 2011). 슈퍼마켓의 수와 위치에 대한 조사는 특정 지역 내에서 식료품점의 분포와 밀도를 조사하여 얼마나 식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또한 조사대상 지역주민의 식품섭취와 체중, 체질량지수(BMI)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식생활 환경이 개인의 식습관과 식이섭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Lear 등(2013)의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다른 지역의 5개 슈퍼마켓 고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와 슈퍼마켓 특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같은 식품을 각각의 슈퍼마켓

*Corresponding author: Eunkyung Kim,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0 Nokjiro, Gwonseon-gu, Suwon, Gyeonggi, 441-853, Korea Tel: 82-31-299-0487 Fax: 82-31-299-0454 E-mail: reginaq99@gmail.com

에서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을수록 해당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조사대상자들의 체질량지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고 하였다. 지역의 식료품점과 식이섭취, 체질량지수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Hattori 등(2007)의 연구에서는 식료품점까지의 이동거리에 따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지역의 식료품점의 위치와 건강관련 요인과의 관련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저소득계층의 식품구매행동에 대해 연구한 김(2006)은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식품의 구매빈도가 유의적으로 높다고 하였으며,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표기와 식품의 상태 확인 여부는 소득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2011)는 대형할인점의 입지특성과 이용패턴에 대한 연구에서 대형할인점이 인구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소매점이라고 하였으며, 대형할인점과 거주지와의 거리는 평균 구매액과 비례관계, 이용횟수와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였다. 그 밖에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대형할인점과 체인 슈퍼마켓에 대한 점포선택에 관한 연구(이 2012), 슈퍼마켓의 도입과 토착화를 위한 연구(김 1974) 등 소비행동이나 라이프스타일 또는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농촌 지역의 식생활 환경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식생활 환경은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급자족, 식품구매, 외식, 급식 등으로 좁혀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식생활 환경을 개인의 식품선택으로 식품 구매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식료품점에 중점을 두고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비봉면 주민이 이용하는 식료품점 위치, 방문 빈도와 주요 구매 식품, 이동 수단, 주변 식료품점에서 구매 용이성,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등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그 변화를 예측하고 올바른 식생활로 유도하기 위한 식생활 환경연구 분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지역 및 대상

조사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으로 선정하였다. 도시에 많은 식료품점이 있어 개인의 식품 선택 범위가 비교적 자유로우나 농촌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식료품 소매업 서울 16,634개, 경기도 14,096개)(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따라서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촌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 보다는 식품구매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되었다. 또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전형적인 농촌지역 보다는 상업시설이 있는 도시근교 농촌에 귀농·귀촌가구 유입이 높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부적인 지역선정은 화성시의 면 소재 지역 중에서도 외국인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제외하고 인구비율이 중간정도인 비봉면을 선정하였다.

비봉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약 500m 이내에 위치한 양노1리, 1,000m 이내에 위치한 양노4리, 삼화3리, 1,500m 이내에 위치한 구포2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마을선정은 조사 반경 내에서 표본추출의 용이성을 위하여 인구가 많은 마을을 선택하였는데 양노4리는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이었으며, 삼화3리와 구포2리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농촌지역에서도 면소재지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각 마을의 가구 수는 2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이었다.

조사대상은 43가구이며, 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1마을에서 10~12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3년 6~7월 사이에 실시되었고, 조사응답지는 마을 이장 또는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연령별 편의추출 하였다. 식료품점 현황은 4개 마을 내에 위치한 8개의 식료품점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모든 조사는 일대일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각 가구의 세대 유형, 가구소득, 식비와 외식비 등의 일반적인 사항과 이용하는 식료품점, 주요 구매식품, 이용 빈도, 이동 수단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에 위치한 식료품점의 운영 현황과 건강식품(유기농, 저 나트륨, 저지방 식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식료품점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 나이, 가구원 수, 연 소득, 식료품 지출비, 외식비를 보았다. 식료품점과 주요 구매식품 간의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SPSS를 이용하여 대응 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지역의 식료품점 현황

조사지역에는 체인 슈퍼마켓 1개, 비체인 슈퍼마켓 5개, 편의점 2개로 총 8개의 식료품점이 있었고 대형할인점은 없었다. 체인 슈퍼마켓은 매장 규모 612 m²이며,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일 없이 운영하고, 유기농, 저나트륨, 저지방 제품을 판매하였다. 저 나트륨 식품으로는 가공육류, 라면류, 씨리얼류, 조미료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비체인 슈퍼마켓 5개소는 27~133 m²로 각 매장 크기도 규모 차이가 크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 전후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건강식품으로 유기농식품, 저 나트륨식품, 저지방 식품은 거의 판매하지 않았으며, 2개소에서 저지방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저지방 식품으로는 주로 우유가 판매되었고, 1곳에서만 우유 및 유제품류, 가공육류, 콩 가공품, 씨리얼류, 유지류가 판매

<Table 1> Grocery store operations and health food sales presence in Bibong-myeon, Hwasung-si

	A	B	C	D	E	F	G	H
Store type	Super supermarket	Supermarket	Supermarket	Supermarket	Supermarket	Supermarket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Business hours	8:00~21:00	8:00~23:00	6:40~22:30	Weekday 10:00~19:00 Weekend closed	8:30~21:00	6:00~21:30	Weekday 6:00~22:30 Weekend 6:00~21:30	24 hours
Closed on day	Always	Always	Always	8 days/month	Always	Always	2 days/month	Always
Organic	Sal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Low Na	Sal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Low fat	Sale	Sale	Sale	None	None	None	None	Sale

되었다. 편의점 2개소는 30~42 m²로 1곳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1곳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건강식품은 1곳의 편의점이 저지방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유기농식품, 저나트륨식품은 판매하지 않았다<Table 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2>와 같다. 가구에서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경우는 주부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9.3세이며, 연령 분포는 30대 23.3%, 40대 27.9%, 50대 27.9%, 60대 20.9%였다. 주택유형은 단독주택(46.5%)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아파트(32.6%) 보다 많았으며,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76.8%로 소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가구원수는 4명이 39.5%로 가장 많았고, 평균 3.7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26명으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가구의 연평균 소득수준은 1,000~2,000만원이 39.5%로 가장 많았고, 2,000~5,000만원은 32.6%, 5,000만원~1억원은 11.6%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는 20만원 미만 30.2%, 20~40만원 25.6%였으며, 외식비는 10만원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고, 10~20만원이 25.6%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4분기 우리나라 1인 이상 가구 전체의 평균 식료품 소비지출은 257,497원, 외식비는 258,822원(근로자가구 303,577원, 근로자외가구 195,784원)이었다. 통계청 자료와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조사대상자의 30% 이상이 우리나라 평균 식료품 소비지출액 수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지역은 도시보다는 집주변 텃밭을 이용하여 채소류를 자급자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추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83.7% 이상이 우리나라 평균 외식비 지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식료품점 유형별 이용현황

조사대상자가 이용하는 식료품점 유형별 현황과 연령별 이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Age (year)	30~39	10(23.3)
	40~49	12(27.9)
	50~59	12(27.9)
	60~69	9(20.9)
Average	49.3±11.1 ¹⁾	
House type	Single-family home	20(46.5)
	Apartment	14(32.6)
	Townhouse	7(16.3)
	Multi-family home	1(2.3)
	Commercial building	1(2.3)
Automobile ownership	Yes	33(76.8)
	No	10(23.3)
Family size (person)	1	1(2.3)
	2	9(20.9)
	3	7(16.3)
	4	17(39.5)
	≥5	9(20.9)
Average	3.7±1.4 ¹⁾	
Household income (1,000 won/year)	10,000~20,000	17(39.5)
	20,000~50,000	14(32.6)
	50,000~100,000	5(11.6)
	Uncertain	7(16.3)
Food expenses (won/month)	<200,000	13(30.2)
	200,000~400,000	11(25.6)
	400,000~600,000	8(18.6)
	600,000~1,000,000	7(16.3)
	Others	4(9.3)
Eating-out expenses (won/month)	<100,000	25(58.1)
	100,000~200,000	11(25.6)
	200,000~400,000	5(11.6)
	Others	2(4.7)
Total	43(100)	

¹⁾Mean±SD

용하는 식료품점 수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조사지역 내의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경우 61.5%, 타 지역의 식료품점 이용은 38.5%로 나타났다. 조사지역 내에서의 식료품점 이용 현황은 체인 슈퍼마켓이 42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비체인 슈퍼마켓은 20건(29.9%)으로 나타났다. 비봉면 이외의 타 지역 식료품점을 방문하는 경우로 대형할인점 24건(57.1%), 체인 슈퍼마켓 7건(16.7%), 비체인 슈퍼마켓 4건(9.5%)으로 나타나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타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안산시, 수원시, 군포시 까지 방문하여 식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 내 위치한 8개의 식료품점 중 편의점 2개소와 비체인 슈퍼마켓 2개소를 제외한 4개의 식료품점에서 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식료품점 수는 평균 2.6개소였으며, 연령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그러나 연령별 이용하는 식료품점의 수를 비교한 결과 30대(2.9개 이용)가 60대(2.0개 이용)보다 더 많은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다양한 식품 구매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구원수와 소득수준, 식료품비, 외식비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료품점 유형별 건강식품의 가격과 이용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Leone 등(2011)은 건강식품의 이용가능성은 식료품점의 유형(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에 따라 유의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대형 슈퍼마켓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조사지역 중 비봉면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양노1리 주민은 가구당 평균 1.9개의 식료품점을 이용하였고, 가장 먼 구포2리 주민은 3.0개의 식료품점을 이용하여 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식료품점 유형과 구매식품의 관련성

식료품점 유형별 주요 구매식품에 대한 결과는 <Table 4>,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대응일치분석은 2차원 분할표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이미지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주

<Table 3> Grocery stores using statu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χ^2
	Research area	Other area	
Grocery store type			
Large-scale discount store	-	24(57.1)	63.9642***
Super supermarket (SSM)	42(62.7)	7(16.7)	
Supermarket	20(29.9)	4(9.5)	
Traditional market	-	5(11.9)	
Others	5(7.5)	2(4.8)	
Total	67(61.5)	42(38.5)	109(100.0)

***p<0.001

는 분석기법으로 행과 열의 설명력이 70% 이상이 되어야 둘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Koo 2007). 본 연구에서는 설명력이 80.25%로 식료품점의 유형과 주요 구매 식품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대형할인점은 가공식품과 밀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체인 슈퍼마켓은 곡류, 생선류, 육류와 밀접하게 나타났고, 비체인 슈퍼마켓은 우유 및 유제품, 채소류, 과일류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기타 식품과 밀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Leone 등(2011)의 연구에서 대형 슈퍼마켓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저지방 우유, 통밀 빵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식료품점에서 저지방 우유와 다양한 통밀 빵이 차지하는 진열대의 공간이 지역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대형할인점에서 주로 구매하는 식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체인 슈퍼마켓에서 신선식품에 대한 구매율이 높고, 거리가 먼 대형할인점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식료품점 유형별 이용 빈도 및 이동수단

식료품점 유형별 이용 빈도와 이동수단은 <Table 5>와 같다. 대형할인점의 경우 월 2~3회와 월 1회 이하 방문이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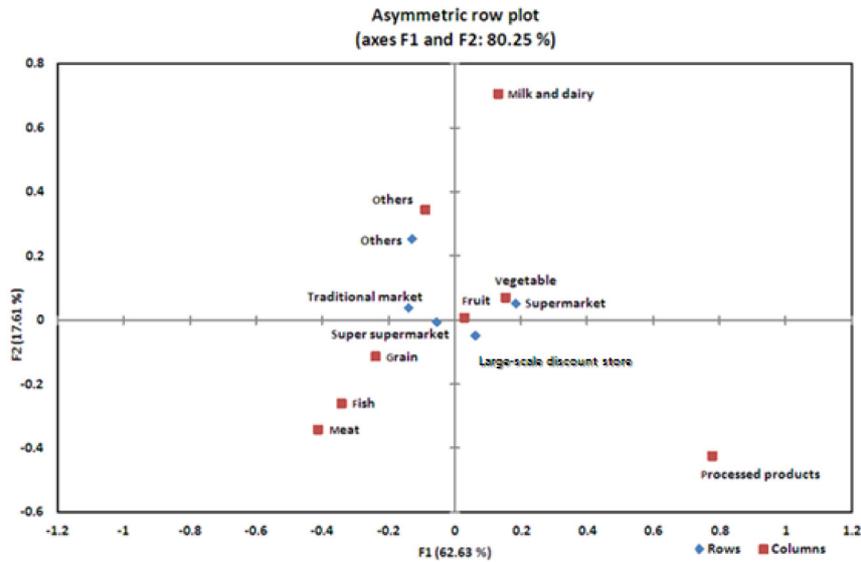
<Table 4> Staple food items according to grocery store type

N(row %)¹⁾

Variables	Large-scale discount store	Super supermarket	Supermarket	Traditional market	Others	χ^2
Grain	7(23.3)	20(66.7)	1(3.3)	1(3.3)	1(3.3)	11.9221*
Meat	11(19.3)	41(71.9)	3(5.3)	1(1.8)	1(1.8)	39.4525***
Fish	12(23.1)	33(63.5)	3(5.8)	3(5.8)	1(1.9)	24.8540***
Vegetable	9(18.4)	27(55.1)	10(20.4)	3(6.1)	-	8.4192
Fruit	12(22.2)	31(57.4)	8(14.8)	2(3.7)	1(1.9)	12.9418*
Milk and dairy	12(20.0)	33(55.0)	11(18.3)	1(1.7)	3(5.0)	7.4479
Processed products	21(32.3)	29(44.6)	15(23.1)	-	-	24.1417***
Others	1(7.7)	8(61.5)	2(15.4)	1(7.7)	1(7.7)	7.4100

¹⁾Row percent (%) by chi-square (χ^2) test

*p<0.05, **p<0.01, ***p<0.001



<Figure 1> CA loadings illust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cery store and the food items

10건(41.7%)으로 많았고, 체인 슈퍼마켓은 주 1~2회가 23건(46.9%)으로 많았다. 또한 대형할인점은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21건(87.5%)로 이는 조사지역에 대형할인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인 슈퍼마켓은 걸어가는 경우가 26건(53.1%), 자가 차량이 14건(28.6%)으로 나타났다. 비체인 슈퍼마켓은 주 1~2회 방문하며, 걸어서 방문하는 경우(18건, 75%)가 가장 많았다. 전통시장도 대형할인점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인데, 대형할인점과는 달리 자가 차량(1건, 20%)이나 대중교통(3건, 60%)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 중 전통시장에서 근무하는 특수한 경우로 응답된 결과이다. 주부의 직장 위치에

따라서도 구입하는 식품 구매장소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조사에서 주부의 직업이나, 직장 위치는 조사되지 않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재래시장 방문자는 거주지역과 버스 정류장 연결이 원활한 곳 인근에 있는 시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기타의 경우는 우유 등 정기적인 배달 식품이나 트럭에 식품을 싣고 비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상인에게 구입하는 경우로 7건(6.4%) 있었다.

6. 식품품 구매의 편의성

주변 식품품점에서 식품 구매의 편의성에 대한 내용은 <Table 6>과 같다. 주변 식품품점에서 일반적으로 원하는 식품 구매가 쉬운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쉽다’라고 대답한 경

<Table 5> Frequency of visits and means of transport according to grocery store type

N(%)

Variables	Large-scale discount store	Super supermarket	Supermarket	Traditional market	Others	Total	χ^2
Frequency of visits							
Every day	-	4(8.2)	3(12.5)	-	-	7(6.4)	52.0837**
3~4 times/wk	-	10(20.4)	7(29.2)	-	2(28.6)	19(17.4)	
1~2 times/wk	3(12.5)	23(46.9)	8(33.3)	-	2(28.6)	36(33.0)	
2~3 times/mth	10(41.7)	6(12.2)	3(12.5)	3(60.0)	1(14.3)	23(21.1)	
<1 time/mth	10(41.7)	5(10.2)	3(12.5)	1(20.0)	2(28.6)	21(19.3)	
Others	1(4.2)	1(2.0)	-	1(20.0)	-	3(2.8)	
Means of transport							
Private car	21(87.5)	14(28.6)	2(8.3)	1(20.0)	-	38(34.9)	119.4442**
Car belonging to others	1(4.2)	4(8.2)	2(8.3)	-	1(14.3)	8(7.3)	
Public transportation	2(8.3)	4(8.2)	2(8.3)	3(60.0)	-	11(10.1)	
Walk	-	26(53.1)	18(75.0)	1(20.0)	2(28.6)	47(43.1)	
Delivery	-	-	-	-	4(57.1)	4(6.7)	
Others	-	1(2.0)	-	-	-	1(0.9)	
Total	24(22.0)	48(45.0)	24(22.0)	5(4.6)	7(6.4)	109(100)	

**p<0.01

<Table 6> Convenience of the local grocery store

N(row %)¹⁾

Variables	Difficulty	Normal	Easy	Very easy	χ^2
Total	4(9.3)	15(34.9)	11(25.6)	13(30.2)	-
Age (year)					
30~39	3(30.0)	4(40.0)	2(20.0)	1(10.0)	15.2594
40~49	-	4(33.3)	6(50.0)	2(16.7)	
50~59	1(8.3)	4(33.3)	1(8.3)	6(50.0)	
≥60	-	3(33.3)	2(22.2)	4(44.5)	
Family size (person)					
≥2	1(10.0)	2(20.0)	2(20.0)	5(50.0)	13.3315
3	-	2(28.6)	2(28.6)	3(42.8)	
4	1(5.9)	10(58.8)	5(29.4)	1(5.9)	
≥5	2(22.2)	1(11.1)	2(22.2)	4(44.5)	
Household income (1,000 won/year)					
10,000~20,000	1(25.0)	5(35.7)	4(36.4)	6(46.2)	4.4644
20,000~50,000	2(50.0)	4(28.6)	4(36.4)	4(30.8)	
50,000~100,000	1(25.0)	1(7.1)	1(9.1)	2(15.4)	
Uncertain	-	4(28.6)	2(18.2)	1(7.7)	
Food expenses (won/month)					
<200,000	-	3(21.4)	3(27.3)	7(53.9)	13.7937
200,000~400,000	2(50.0)	4(28.6)	4(36.4)	-	
400,000~600,000	-	3(21.4)	2(18.2)	3(23.1)	
600,000~1,000,000	2(50.0)	2(14.3)	1(9.1)	2(15.4)	
Others	-	2(14.3)	1(9.1)	1(7.7)	
Eating-out expenses (won/month)					
<100,000	1(25.0)	7(50.0)	7(63.6)	9(69.2)	5.9188
100,000~200,000	2(50.0)	5(35.7)	2(18.2)	2(15.4)	
200,000~400,000	1(25.0)	1(7.1)	1(9.1)	2(15.4)	
Others	-	1(7.1)	1(9.1)	-	

¹⁾Row percent (%) by chi-square (χ^2) test
No significant

우는 13명(30.2%), ‘쉽다’ 11명(25.6%), ‘보통’ 15명(34.9%), ‘어렵다’ 4명(9.3%)으로 나타났다. 구매가 어렵다고 느낀 품목은 쇠고기와 닭고기 부위별 제품과 저당제품이었다. 연령에 따른 비교를 살펴보면, 60대의 경우 ‘매우 쉽다’는 4명(44.5%)이었으나, ‘어렵다’라고 답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30대는 ‘어렵다’ 3명(30.0%), ‘매우 쉽다’ 1명(1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식료품점의 접근성과 다양한 식품구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러한 요구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구매 비용이 20만원 이하인 그룹은 ‘매우 쉽다’가 7명(53.8%)이었고, ‘어렵다’라고 답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외식비의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인 그룹은 ‘매우 쉽다’ 9명(37.5%)으로 다른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Zenk 등(2013)은 낮은 연령과 고소득층, 지역 식품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심한 빈곤의 생활환경, 대형 식료품점이 없거나, 가장 가까운 대형 슈퍼마켓과의 거리가 떨어진 경우에 식품 구매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가구원 수, 소득수준, 식품구입비, 외식비 등의 요인과 지역의 식료품점 이용에 대한 편의성과의 관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하여 대략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유기농제품, 저 나트륨, 저지방 제품을 홍보할 경우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모두 각각 8명(18.6%), ‘보통’은 16명(37.2%)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에는 연령과 가구원 수, 가구소득 및 지출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지 못하였는데, 추후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식습관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Table 7>. 본 연구에서 유기농, 저 나트륨, 저지방 식품에 대한 관심이 보통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30명(69.8%)으로 나타나 건강식품에 대한 고관여 구매층은 많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는 건강식품의 식료품 구매현황과 소비자의 관

<Table 7> Interested in the health food

N(row %)¹⁾

Variables	Very low	Low	Normal	High	Very high	χ^2
Total	8(18.6)	6(14.0)	16(37.2)	5(11.6)	8(18.6)	-
Age (year)						
30~39	1(10.0)	2(20.0)	3(30.0)	4(40.0)	-	20.2996
40~49	1(12.5)	3(50.0)	5(31.3)	1(20.0)	2(25.0)	
50~59	2(25.0)	1(16.7)	5(31.3)	-	4(50.0)	
≥60	4(50.0)	-	3(18.8)	-	2(25.0)	
Family size (person)						
≥2	4(50.0)	-	5(31.3)	-	1(12.5)	13.6770
3	2(25.0)	1(16.7)	1(6.3)	1(20.0)	2(25.0)	
4	2(25.0)	3(50.0)	8(50.0)	2(40.0)	2(25.0)	
≥5	-	2(33.3)	2(12.5)	2(40.0)	3(37.5)	
Household income (1,000 won/year)						
10,000~20,000	5(62.5)	3(50.0)	6(40.0)	-	2(25.0)	17.4631
20,000~50,000	2(25.0)	3(50.0)	5(33.3)	2(40.0)	2(25.0)	
50,000~100,000	1(12.5)	-	2(13.3)	2(40.0)	-	
Uncertain	-	-	2(13.3)	1(20.0)	4(50.0)	
Food expenses (won/month)						
<200,000	4(50.0)	1(16.7)	4(26.7)	-	4(50.0)	18.0752
200,000~400,000	1(12.5)	3(50.0)	2(13.3)	3(60.0)	1(12.5)	
400,000~600,000	1(12.5)	1(16.7)	4(26.7)	1(20.0)	1(12.5)	
600,000~1,000,000	2(25.0)	-	4(26.7)	1(20.0)	-	
Others	-	1(16.7)	1(6.7)	-	2(25.0)	
Eating-out expenses (won/month)						
<100,000	5(62.5)	3(50.0)	9(60.0)	2(40.0)	5(62.5)	12.6748
100,000~200,000	3(37.5)	2(33.3)	1(6.7)	3(60.0)	2(25.0)	
200,000~400,000	-	1(16.7)	4(26.7)	-	-	
Others	-	-	1(6.7)	-	1(12.5)	

¹⁾Row percent (%) by chi-square (χ^2) test
No significant

심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 조사지역은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주민의 관심도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과 건강한 식품 구매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으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주민의 식료품점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국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거주민의 식품구매 행동과 주변 식료품점을 분석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처음으로 시도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조사는 가정에서 식료품 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식료품점 유형별 이용실태와 연령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이용편의성,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를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조사지역 내의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경우 61.5%, 타 지역의 식료품점 이용은 38.5%로 나타났다. 조사지역 내에서는 체인 슈퍼마켓(42건, 62.7%)과

비체인 슈퍼마켓(20건, 29.9%), 타 지역에서는 대형할인점(24건, 57.1%)과 체인 슈퍼마켓(7건, 16.7%)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타 지역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에서는 주로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지역 내에 위치한 체인 슈퍼마켓에서는 곡류, 육류, 생선류, 비체인 슈퍼마켓에서는 채소류를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할인점 방문 횟수는 월 2~3회 41.7%, 월 1회 41.7%로 나타났고, 이동수단은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87.5%였다. 체인 슈퍼마켓은 주 1~2회(46.9%), 걸어서(53.1%)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역 식료품점의 이용 편의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연령, 가구원수, 소득수준, 식료품비, 외식비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 차이는 없었으나, 30대는 원하는 식품 구매가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60대는 쉽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30대가 60대 보다 이용하는 식료품점의 수가 많고 다양한 식품 구매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면 단위의 농촌지역은 보통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는데, 면사무소와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는 식품구매를 위해 더욱 많은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아닌 타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양한 식료품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건강한 생활과 거주민 만족을 위해서는 이들의 식료품 구매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방법적 접근을 통하여 환경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Joo(2012)는 인적자본과 어메니티의 관계 분석에서 거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머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일반인들은 식료품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농촌지역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도 식료품점의 입지는 큰 매력 요인임을 강조하고 싶다. 식료품점은 인구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설로,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 대형 식료품점의 입지 가능성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장점은 신선한 농산물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 구매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농촌으로 찾아오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완주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 좋은 예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품 구매 행태를 비교한다든지, 지역주민의 식품섭취 현황과 식품 구매를 비교하는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부 농촌지역만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점, 표본수가 많지 않은 점에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농촌지역 또는 도시와 농촌지역을 비교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08995)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References

- 국민건강통계. 2011. 보건복지부
- 김수현. 2006. 저소득계층의 식품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pp 1-36
- Gartin M. 2012. Food deserts and nutritional risk in Paraguay. *Am J. Hum Biol*, 24(3):296-301
- Gustafson AA, Sharkey J, Samuel-Hodge CD, Jones-Smith J, Folds MC, Cai J, Ammerman AS. 2011. Perceived and objective measures of the food store environment and the association with weight and diet among low-income women in North Carolina. *Public Health Nutr*, 14(6):1032-1038
- Hattori A, An R, Sturm R. 2013. Neighborhood food outlets, diet, and obesity among California adults, 2007 and 2009. *Prev Chronic Dis*, 10:E35
- Joo Mijin. 2012. Are amenities important for the migration of highly educated workers? Doctors degree thesis. Chung-ang University. pp 1-183
- Kim HS. 1974. Research on transplanted of supermarkets and some problems on settling down them. Masters degre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 1-125
- Koo SH. 2007. A study on personification image of channel brand: Focused in congruity theory. *Korean Advertising Society*, 18(3):73-96
- Lear SA, Gasevic D, Schuurman N. 2013. Association of supermarket characteristics with the body mass index of their shoppers. *Nutr J*, 12:117
- Lee JH. 2011. Analysis of Large-scale discount stores'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usage patterns. Doctors degree thesis. Hanyang University. pp 80-101
- Lee GU. 2012. A Study on the Store Choice by Large Discount Store and Super-Supermarket Based on Life Style. Doctors degree thesis. Cheongju University. pp 1-143
- Leone AF, Rigby S, Betterley C, Park S, Kurtz H, Johnson MA, Lee JS. 2011. Store type and demographic influence on the availability and price of healthful foods, Leon County, Florida, 2008. *Preventing chronic disease*, 8(6):1-8
- Moore LV, Diez Roux AV. 2006. Associations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with the location and type of food stores. *Am J. Public Health*, 96(2):325-331
- Morland K, Wing S, Diez Roux A, Poole C. 2002.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location of food stores and food service places. *Am J. Prev Med*, 22(1):23-29
- Morland K, Diez Roux AV, Wing S. 2006. Supermarkets, other food stores, and obesity: the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study. *Am J. Prev Med*, 30(4):333-339
- Moore LV, Diez Roux AV, Nettleton JA, Jacobs DR Jr. 2008. Associations of the local food environment with diet quality—a comparison of assessments based on survey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the multi-ethnic study of atherosclerosis. *Am J. Epidemiol*, 167(8):917-924
- Sharkey JR. 2009. Measuring potential access to food stores and food-service places in rural areas in the U.S. *Am J. Prev Med*, 36(4):S151-155
- Story M, Kaphingst KM, Robinson-O'Brien R, Glanz K. 2008. Creating healthy food and eating environments: policy and environmental approaches. *Annu Rev Public Health*, 29:253-272
- Zenk SN, Schulz AJ, Israel BA, James SA, Bao S, Wilson ML. 2005. Neighborhood racial composition, neighborhood poverty, and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supermarkets in metropolitan Detroit. *Am J. Public Health*, 95(4):660-667
- Zenk SN, Schulz AJ, Israel BA, Mentz G, Miranda PY, Opperman A, Odoms-Young AM. 2013. Food shopping

behaviours and exposure to discrimination. Public Health Nutr, 27:1-10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2013년 10월 10일 신규논문접수, 10월 28일 수정논문접수, 11월 11일 수정논문접수, 11월 14일 채택